

중공군의 상감령(上甘嶺)전투에 대한 재평가

吳 圭 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서 론
- 작전배경과 피·아 작전계획
- 작전경과
- 중공군의 전술 분석
- 결론 : 중공군의 상감령전투에 대한 재평가

1. 서 론

중국은 한국전쟁을 결산하면서 청천강 유역에서 벌인 제2차 전역(戰役)¹⁾과 우리가 저격능선전투라고 부르는 상감령전투를 한국전에서 거둔 최대 승리라고 주장한다. 특히 상감령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고정방어작전의 경험

1) 중국은 일정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된 작전계획에 의거 일정한 방향과 시간 내에 행하는 전투를 전역이라 부르고 있다.

이 없던 중공군이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에 맞서 작전지역을 훌륭히 방어함은 물론 유엔군을 대량 살상함으로써 미군을 수세에 몰아넣고 전장 전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²⁾고 주장한다.

반면에 상감령전투 즉 저격능선전투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197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공간사(公刊史) 『한국전쟁사:대진중기(對陣中期)-제8권』과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투사 시리즈로 발간한 『저격능선전투』는 유엔군의 승리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두 공간사는 모두 강성호씨에 의해 집필되었으므로 같은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 반면에 같은 기관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80년 편찬한 『한국전쟁사: UN군 참전편-제11권』은 “한국군 제2사단의 공격은 11월 24일까지 계속되었으나 끝내 실패하고, 겨우 저격능선 일각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쇼우다운(Show Down)」⁴⁾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⁵⁾”라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저격능선전투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공간사마저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에서 펴낸 『한국전쟁사』는 “9군단의 우익인 제2사단은 오성산부근에서 중공군 제15군단과 저격능선을 놓고 격전을 벌였다”고 만 언급할 뿐 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⁶⁾ 저격능선전투에 대한 평가가 어긋나 있는 가운데 중공군이 한국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가 상감령전투라고 주장한 중국측 공간사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⁷⁾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 의해서 1991

2)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 p. 305.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서울:국방부, 1988)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대진중기-제8권』(서울:국방부, 1975), pp. 375-444 참조.

4)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 대한 공격계획을 유엔군은 공격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Show Down이라 명명하였다.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UN군 참전편-제11권』(서울:국방부, 1980), p. 659.

6)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서울:육군사관학교, 1988), p. 587.

7)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編著,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北京:1988年), pp. 236-253 참조.

년 『중공군의 한국전쟁사』⁸⁾로 국내에 번역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93년 육군본부는 강성호가 집필한 『저격능선 전투』와 중국의 동더시엔(童德先)이 집필한 『血戰上甘嶺』⁹⁾을 번역하여 한 책으로 묶어 『저격능선 혈전』¹⁰⁾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저격능선 전투에 대한 평가는 시도하지 않고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육군대학 한국전쟁사 교관 임종득 소령은 2000년 5월 『군사평론』에 저격능선전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는 글을 게재하였다.¹¹⁾ 한편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9월 기존의 한국전쟁사를 한층 보완하고, 또한 상감령전투도 한층 자세히 기술한 새로운 공간사, 『抗美援朝戰爭史』를 전3권으로 출판하였다.

같은 전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평가대상이 차이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저격능선을 승리한 전투로 기술한 『한국전쟁사-제8권』과 『저격능선전투』는 분석대상을 저격능선전투로 국한하였고, 삼각고지 전투의 경우 미 제7사단으로부터 한국군 제2사단이 작전을 인수한 10월 25일부터 삼각고지를 포기한 11월 5일까지 만 그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 제7사단이 삼각고지를 공격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한국군이 삼각고지를 포기하기까지, 모든 삼각고지전투와 전체 저격능선전투를 함께 상감령전투라 칭하고 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평가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서로 승리한 전투라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이 전투에 대해 피·아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세경사, 1991) 참조.
 9) 童德先 著, 『血戰上甘嶺 - 一次舉世聞名的戰役』(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0年) 참조.
 10) 『저격능선 혈전』(대전: 육군본부, 1993) 참조.
 11) 임종득 소령은 『군사평론』 제345호에 기고한 논문 「저격능선(상감령)전투의 재조명」에서 저격능선전투는 작전 목표의 달성과 전투 수행 측면에서 유엔군의 실패한 작전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중공군의 승리였다고 주장하였다. 임종득, 「저격능선(상감령)전투의 재조명」, 『군사평론』 제345호 참조.

재해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흔히 휴전선을 두고 유엔군과 중·조연합군이 일전일퇴를 벌인 당시에 유엔군과 중공군이 구사한 전술은 무엇인지 이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있다. 셋째, 중공군은 갱도전술로 상감령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중공군이 구사한 갱도전술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를 분석하여 적전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감령전투 즉 저격능선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전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감령전투가 발발하기 전, 피·아의 상황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작전계획과 경과 그리고 작전결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으로 인해 한국군이 삼각고지를 인수하기 전까지 미 제7사단에 의해 수행된 삼각고지전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군 제2사단에 의해 수행된 작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작전배경과 피·아 작전 계획

(1) 작전 배경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회담의 진전은 전투의 양상에 직결되었다. 회담이 주요쟁점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 피·아는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재개하였고,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상감령전투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을 작전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사 말리크(Jacob Malik)가 휴전회담을 제의하자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는 6월 30일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7월 10일 제1차 휴전 본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거듭된 회담을 통해 1951년 11월 27일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일단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1952년 5월 7일 협상의제 5개항 가운데 제4항 ‘포로교환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 합의함으로써 곧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8일 ‘포로교환문제’를 두고 상호 주장이 대립되면서 회담은 무기한 휴회되었다. 따라서 쌍방은 회담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양측의 전력에도 변화가 있었다. 즉, 휴전회담 초기인 1951년에는 유엔군의 전력이 월등히 우세하였으나, 그 후 북한과 중공군의 지속적인 전투력 증강으로 1952년 여름이 지나면서 전력은 역전되었다. 이러한 휴전회담 초기와 중반, 양측의 병력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화력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공군은 꾸준한 전력증강을 피하여 1952년 가을 거의 유엔군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¹²⁾ 어느 정도 전력을 구비한 북한과 중국은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아군의 전초진지를 공격함으로써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포로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즉 ‘중·조연합사령부’는 예상되는 유엔군의 국지적인 공세를 분쇄하고 부대를 훈련시키며 전투경험을 축

<표 1> 휴전회담 초기와 중반 양측의 병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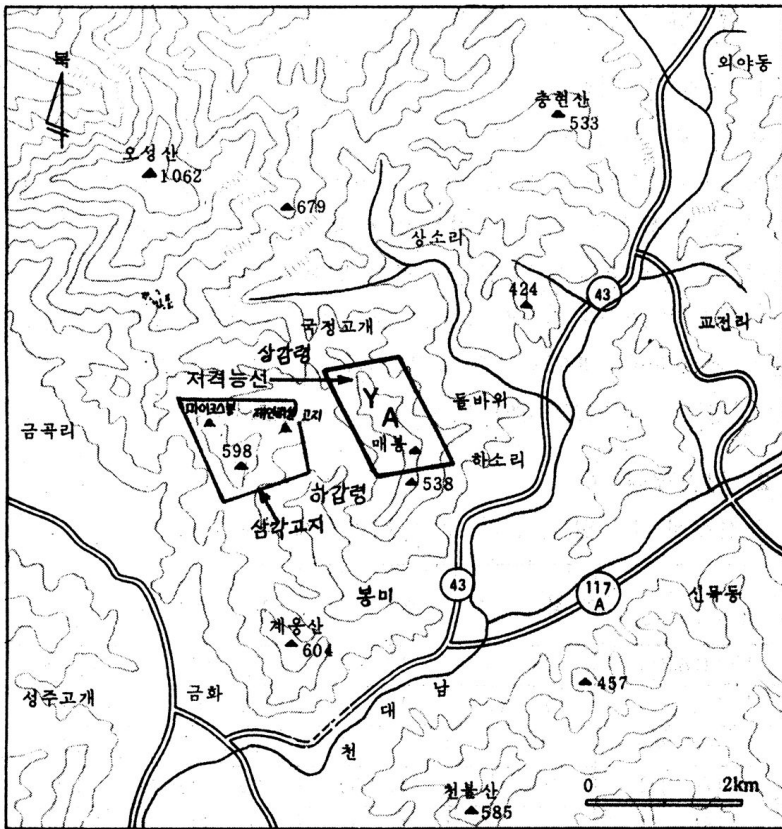
구 분	북한군/중공군	한국군/유엔군
1951년 7월 31일	579,500명	547,838명
1952년 10월 1일	총병력 : 1,060,400명 (349,800명/710,600명)	총병력 : 711,870명 (418,900명/292,970명)

출처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서울:국방부, 1988), pp. 7-8 요약 정리.

12) 임종득, 위의 주, p. 134.

적하기 위하여 전초의 유리한 목표에 대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소위 '전술적 반격작전'을 계획하였다.

한편 미 8사령관 밴프리트(James Alward Van Fleet)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공산측의 공격이 계속되면 유엔군의 병력손실과 사기저하 그리고 휴전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밴프리트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결심하고 제9군단장 켄킨스(Jenkins) 소장에게 쇼우다운작전을 지시하였다. 이 쇼우다운작전계획에



<요도 1> 작전지역 세부 지형도

따라 미 제7사단은 삼각고지¹³⁾에 대하여, 한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¹⁴⁾에 대하여 공격을 실시하게 된다. <요도 1>은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일대에 대한 지형도이다. 결론적으로 유엔군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된 중공군의 ‘전술적 반격작전’에 맞서 지상작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소우다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에서 적과 아군이 격렬하게 충돌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저격능선전투 또는 중국이 지칭하는 상감령전투이다.

(2) 유엔군의 작전계획

1) 유엔군의 작전계획

미 8군사령관 밴프리트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결심하고 9군단장 제킨스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작전지침을 주고 작전계획의 입안을 명령하였다. 밴프리트의 작전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⁵⁾

가. 북한군과 중공군이 공격을 중지하고 수세에 몰리도록 유엔군이 주도권을 쥐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한다.

나. 공격목표는 오성산 부근의 중공군 전초 가운데 2곳을 선정하여 공격하되, 작전지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지정된 목표만을 탈취한다.

13) 삼각고지는 오성산(1062) 남방, 저격능선에서 서쪽으로 도상 2km에 위치한 598고지(CT659418)를 가리킨다. 이 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의 제인 러셀고지(Jane Ressel Hill)와 북서쪽의 피이크스봉(Pikes Peak), 남동쪽의 샌디능선(Sandy Ridge)을 합하여 삼각고지군이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삼각고지라 칭하기도 한다.

14) 저격능선은 삼각고지 동쪽에 위치한 538고지군을 가리킨다. 이 지역을 저격능선이라 부르게 된 것은 1951년 10월부터다. 당시 미 제25사단은 금화지역으로 진출하여 중공군 제26군단과 대치하였는데, 이 능선에 배치된 중공군이 538고지로 진출하는 미군을 저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줌으로써 미군은 이를 스나이퍼 리지(Sniper Ridge)라 불렀으며 이때부터 이 고지는 저격능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중공군은 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일대를 합쳐 상감령이라 부르고 있다.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pp. 10-11.

다. 공격부대는 한국군과 유엔군 1개 부대를 선정하여 각각 1개의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되 각 부대의 병력은 증강하지 않는다.

라. 공격간 군단의 화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격부대를 지원하고 200회 이상 항공근접지원사격을 요청하여 타격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유엔군의 상세한 화력을 과시하여 중공군의 기세를 꺾어 놓는다.

젠킨스는 작전 준비명령을 받고 군단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밴프리트에게 보고하였으며 밴프리트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에게 이 작전의 승인을 건의하였다. 클라크는 작전계획을 접수한 후 작전 시기를 고민하다 휴전회담이 결렬된 다음날인 10월 8일 작전을 승인하면서 조기에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미 8군사령부로부터 작전실시를 명 받은 제9군단은 10월 9일 20시 부로 작전계획 제32호를 발효하여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미 제9군단의 작전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⁶⁾

가. 군단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598고지와 저격능선을 확보하는 즉시 주저항선을 그곳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적을 최대한 살상한다.

나. 한국군 제2사단은 보병 1개 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과 일부 지원부대로 D일 H시에 저격능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이를 탈취하라.

다. 미 제7사단은 보병 1개 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으로 598고지를 탈취하라.

라. 한국군 제9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작전기간 중 담당 지역에 대한 위력수색(威力搜索)을 실시하라.

이상의 작전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9군단은 한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오성산 전연의 적 전초선을 탈취하여 군단의 주저항선을 이곳으로 추진코자 하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사단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군단은 D일 H시를 14일 05시로 결정하였다.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p. 378-380.

2) 한국군 제2사단의 작전계획

군단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 제2사단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였으며 예하 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¹⁷⁾

가. 군단은 유리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목표를 공격한다.

나. 사단은 지역내 미주리선(Missouri Line)을 방어하면서 일부 병력으로 저격능선을 점령하여 주저항선을 추진하려 한다.

다. 제17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별도 명령 시 1개 대대를 32연대에 지원할 준비를 하라.

라. 제32연대는 14일 05시를 기해 지역 내 목표 A를 탈취하라.

마. 제37연대는 현 위치에서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제32연대장 유근창 대령은 사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제3대대를 최초 공격 부대로 삼고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주저항선에서 화력으로 3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3대대에게 14일 05시 공격을 개시하여 A를 탈취한 후, 의명(依命) Y고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3) 중공군의 작전계획

1) 중공군의 정보판단

중공군은 52년 들어 미국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휴전회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추계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군이 연안반도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서부방어선 측후방을 우회하여 연안 배천지구를 점령하고 개성을 포위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¹⁸⁾ 따라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p. 380-383.

18)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pp. 270-272.

서 1952년 춘·하계 기간동안 진지보강공사를 통하여 전초의 지상진지와 갱도진지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공군은 방공호와 갱도진지가 1951년 유엔군의 추계공세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구축에 힘을 쏟아 총연장 1,250km의 갱도진지와 갱도와 참호를 연장하는 6,240km의 교통호를 구축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전선의 곳곳을 중형으로 연결한 갱도진지를 ‘지하장성(地下長城)’으로 칭할 정도로 중시하였다. 따라서 1952년 4월 ‘중·조연합군 사령부’는 전군 참모장회의를 개최하여 갱도의 표준규격과 7가지 위협 요소에 대해 방어(七防)¹⁹⁾할 수 있는 진지의 모형을 하달하였다.²⁰⁾ 중공군은 진지보강과 함께 수송 및 보급 체제도 개선하여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함은 물론 ‘전술적 반격작전’을 준비하였다.

2) 전술적 반격작전

중공군은 유엔군이 우계 이후 전선 정면에서 국부적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분쇄하고 중공군의 훈련을 위해 9월 유엔군에 대한 대대적인 전술적 반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중·조 연합군 사령부’의 작전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전술적 반격작전의 기간은 9월 20일에서 10월 20일간으로 하되 목표와 구체적 공격시간은 각 군단(軍)²¹⁾에서 재량으로 결정한다.

19) 7가지 위협 요소에 대한 방어(七防)란 방공(防空), 방포(防砲), 방독(防毒), 방우(防雨), 방조(防潮), 방화(防火), 방한(防寒)을 가리킨다.

20) 童德先 著, 앞의 책, pp. 78-79.

21) 중공군의 편제와 명칭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병단(兵團)은 야전군에 해당되며, 군(軍)은 군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공군의 군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우리가 야전군을 통상 군으로 호칭하므로 우리의 군과 혼동을 일으켜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군을 군단으로 번역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단대호(團隊號)와 아군의 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군: 중공군, 분대: 반(班), 소대: 파이(排), 중대: 련(連), 대대: 잉(營), 연대: 완(團), 사단: 스(師), 군단: 권(軍), 야전군: 병단(兵團)

- 나. 공격을 실시하면 반드시 적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섬멸한다.
- 다. 목표를 점령한 후에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고 적과의 반복적인 쟁탈전을 통해 적 병력을 대량 살상한다.
- 라.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하여 적에 대한 타격을 극대화하고 작은 지역 확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방침 아래 중·조 연합군 사령부는 1단계로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월 말 교대 예정인 제39, 12, 68군단에게 3-5개의 유리한 목표를 선택하여 전술적 반격작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전선의 제65, 40, 39, 15, 12, 68, 38, 7개 군단으로 하여금 23개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래 중공군은 10월 22일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방어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14일부터 금화(金化) 지역에서 공세를 취한 후 전투가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중·조연합군 사령관 쑹더화이(彭德懷)는 ‘전술적 반격작전’을 10월 말까지 연기하였다.²²⁾

3) 중공군 제15군단의 작전준비

당시 오성산 일대는 천지웨이(秦基偉)가 지휘하는 중공군 15군단 예하의 제29, 45사단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저격능선에서 한국군 제2사단과 최초로 공방을 벌인 부대는 제45사단이었다. 제45사단은 1951년 5월 춘계공방전 당시 심한 타격을 입고 금성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 1952년 4월 중순 이 지역에 다시 투입되었다. 사단은 제133, 135연대를 오운리와 오성산 남쪽에 각각 전개하고 제134연대를 예비로 삼았다. 방어 편성을 마

중국은 아군의 군단에 해당되는 권을 집단권(集團軍)으로 개칭하였고 병단은 관할구역에 따라 다전취(大軍區)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자세한 편제에 관해서는 오규열, 『중국군사론』(서울: 지영사, 2000), pp. 166-172 참조.

22) 童德先 著, 앞의 책, p. 14.

친 중공군은 깊은 교통호로 연결된 견고한 갱도진지를 구축하고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는 등 장기적이고 공고한 방어대책을 세웠다. 1952년 7월 말까지 제45사단이 구축한 방어 시설물은 총 연장 8.8km의 갱도 306개와 엄계 참호 160개와 교통호 53km 그리고 길이 2.1km의 대전차호 4개였다. 또한 참호 2,400개와 노루방책 2.6km, 철조망 2.3km, 동굴양식창고 61개, 동굴탄약창고 65개, 갱도와 연결된 엄폐식 취사장 140개, 각급 지휘소 및 관측소 204개를 건설하여 본래 계획된 임무의 85%를 완성하였다.²³⁾

특히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일대에 대해서는 투항한 한국군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병력을 각각 대대 규모로 증강하여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중공군은 저격능선 북사면 능선하단부터 상단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폭 2m, 깊이 1.5m의 교통호를 20m 간격으로 굴착하여 능선을 오르는 통로로 이용하였다. 또한 8부 능선에 좌우로 연결된 교통호를 따라 8-10m 간격으로 공중폭격과 포격에도 지탱할 수 있는 엄체호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능선 북단에 100-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호를 구축하여 병력을 수용하고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였다.

3. 작전경과

저격능선전투는 유엔군과 중공군 모두 상당한 전투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유엔군의 선제공격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중공군의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단시간 내에 제한된 두 개의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던 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작전은 장기화되었다. 결국 이 전투는 42일간 계속되면서 3.7km²의 좁은 정면에서 뺏고 빼앗기는 고지쟁탈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23) 李明天·王精忠·李天恩 著, 『上甘嶺大戰』(北京:八一出版社, 1993年), p. 27.

이 전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는 1952년 10월 14일부터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 대하여 한국군 2사단과 미 7사단이 공격을 실시하면서부터 미 7사단이 삼각고지에서 철수하게 되는 10월 25일까지이다. 제2단계는 한국군 2사단이 삼각고지를 인수하여 양 고지에서 전투를 수행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기간이다. 제3단계는 한국군 2사단이 삼각고지를 포기하고 저격능선전투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11월 5일부터 저격능선전투가 종료되는 11월 25일까지이다.

42일간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은 결국 어느 편에도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 채 능선 중앙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반분한 상태에서 교전을 중지하게 된다. 남쪽 능선의 A고지와 돌바위능선은 한국군이 점령하고, 북쪽 능선인 Y고지는 중공군이 점령하여 300m 거리를 두고 대치한 가운데 작전을 종결짓게 된 것이다.

(1) 제1단계 작전(저격능선 공방전)

10월 12일부터 유엔군은 공격준비사격을 저격능선지역에 집중하였다. 14일 03시부터는 공격준비사격의 강도를 강화한 후 05시에 한국군 2사단 예하 32연대 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²⁴⁾ 3대대는 9중대로 하여금 동측의 돌바위능선을, 10중대는 서측의 A고지를 각각 탈취하게 하는 한편 11중대를 예비로 삼았다. 그 사이에 지원부대인 미 제140전차대대의 A중대와 대공사격대는 목표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한편 우측의 1대대와 좌측의 2대대가 각각 자대의 공용화기로 지원사격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된 공격은 중공군의 집중적인 탄막사격과 자동화기 그리고 수류탄 투척으로 진출이 좌절되다가 15시가 되어서 공격한지 10시간만에 목표인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탈취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은 제1중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 384.

대로 하여금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Y고지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여 공격한 지 2시간 후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45사단 예하 제135연대가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유엔군의 공격이 진행되자 강도 안으로 들어가 방어를 실시하였다. 저격능선이 탈취된 후 중공군은 유엔군의 상감령지역에 대한 더 큰 공격에 대비하며 반격을 준비하였다. 중공군은 14일 저녁 주자동남산지역의 15군단과 45사단 포병을 상감령작전을 지원하도록 전환하였고 134연대와 133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를 차출하여 598고지와 538고지 북산에 예비대로 증강하여 두 고지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하였다.²⁵⁾

한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의 고지들을 점령 후,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진지강화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중공군의 지속적인 포병사격은 2사단의 방어 준비를 크게 방해하였다. 한편 밤이 되자 중공군 135연대 3개 중대와 2개 소대는 포병의 지원아래 4개 방향으로 반격을 실시하였다.²⁶⁾ 한국군 2사단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진속도는 예상한 것보다도 빨랐다. 최초 보고를 접수한지 10분도 채 못되어 A고지 좌측방에서 교전이 개시되고, Y고지, A고지, 돌바위능선에서 적이 출현하였다. 20시 45분에는 진지의 일각이 무너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이때 중공군의 일부병력이 A고지 남쪽의 매봉에 위치한 3대대 전술지휘소를 기습하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제9중대는 돌바위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21시 부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후 32연대장은 배속 받은 제17연대 2대대를 투입하여 2차 공격을 10월 15일 09시 30분부로 실시하였다. 2대대는 미 제5공군의 49회에 걸친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공지합동작전을 전개한 끝에 14시 30분에 A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에 중공군 제133연대는 10월 15일 야간에 역습을 실시

25)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p. 291.

26)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p. 290.

하였으나 2시간의 혈전 끝에 공격이 좌절되었다. 그러자 중공군 제133연대는 16일 새벽에 여명에 다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탄막 사격에 의해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06시 40분에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중공군 제45사단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133연대를 후방으로 돌리고 제134연대를 투입하였다. 제134연대는 16일과 17일 저격능선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지만 32연대의 완강한 저항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철수하였다. 중공군 제15군단 예하 제45사단은 4일간의 전투에서 2개 연대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제135연대를 투입하였다. 19일 00시 35분에 중공군은 A고지 전방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전투는 20일 04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제32연대는 A고지를 빼앗기고 돌바위고지와 매봉선에서 부대를 수습하고 제17연대와 임무교대를 하였다.

20일 08시 부로 진지교대를 한 제17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21일 08시에 A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세 차례에 걸쳐 감행한 돌격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연대장은 직접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공군은 금화지역에 76회 출격하여 저격능선전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11시 30분에 A고지를 탈환하였다. 이에 중공군 제135연대는 전반야와 후반야에 두 차례에 걸쳐 역습을 실시하였고, 후반야 공격에 의해 A고지를 피탈당한 후, 바로 제3대대가 역습을 실시하여 22일 15시에 A고지를 다시 확보하였다.

23일 21시에 중공군 제135연대는 다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17연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24일 09시에 Y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단으로부터 공격 중지명령이 하달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저격능선전투는 10월 25일 한국군 제2사단 17연대가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점령한 가운데 제1단계 작전이 끝나게 되었다.

(2) 제2단계 작전(삼각고지와 저격능선 공방전)

1) 삼각고지 전투

한국군 제2사단은 10월 25일부로 삼각고지 탈환임무를 미 7사단으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삼각고지는 본래 한국군 2사단의 좌 인접 사단인 미 7사단의 목표였다. 군단은 소우다운작전계획에 의거 한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을, 미군 제7사단은 삼각고지를 공격하게 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 까지 두 사단은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그런데 미 7사단은 이 작전기간 동안 약 8개 대대를 투입하였으나 많은 사상자만을 내고 목표를 완전히 탈취하지 못하였다.²⁷⁾ 한편 이때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한국전선에서 명분 없는 싸움으로 미군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9군단장 켈킨스 소장은 삼각고지의 작전임무를 한국군 2사단에 넘겼다. 군단은 한국군 2사단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10월 22일 12시 부로 군단 작전명령 A10-309호를 하달하여, 2사단의 주저항선의 우익인 회고개와 외야동간의 작전지역을 한국군 제6사단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백마고지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을 지원하던 국군 제1야포단과 제53전차중대를 금화지역으로 이동시켜 2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선을 재정비한 2사단은 10월 25일 06시를 기하여 삼각고지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한편 2사단은 31연대가 삼각고지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부터 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병력과 화력의 운용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작전면에 있

27) 미 제7사단 전투일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당시 국군 제2사단장이었던 정일권에 의하면 “스미스(Smith) 소장이 지휘하는 미 제7사단도 삼각고지를 공격하였는데 이 사단 역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지를 오르내리며 10여일 동안을 교전하는 사이에 약 3,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정일권 증언록-저격능선전투」, 1979년 10월.

어서도 양쪽지역의 전황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각고지를 인수한 31연대는 진지를 편성한 후, 사단 방침에 따라 일체의 공격작전을 중지하고 방어에만 치중하였다. 삼각고지에서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저격능선에서는 연일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29일 02시에 오랜 침묵을 깨고 중공군 1개 중대 규모가 삼각고지의 제일 큰 봉우리인 598고지를 목표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이 고지가 상실된다면 사실상 삼각고지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을 만큼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였다. 31연대 2대대는 연대 수색중대까지 투입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05시 30분에 지대내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다음날 02시에 중공군은 맹렬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 후 598고지에 대한 집중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는 미 제7사단의 포병지원을 받으며 분투하였으나 교전 2시간만에 진지가 돌파되어 밀리기 시작하였다. 31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단행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31연대는 진지를 인수한 지 5일만에 삼각고지를 상실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598고지를 상실한 후, 긴급작전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작전참모인 김필상 중령은 “저격능선의 상황이 위급하여 예비대인 17연대 2개 대대를 투입하였기 때문에 병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후 현 상황 하에서는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에 병력을 분할 운용하는 것보다는 저격능선만이라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긴급하다”²⁸⁾고 건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10월 30일 작전명령 제110호를 하달하여 17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제32연대를 망소로 집결시켜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곧 이어 그는 군단장에게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군단은 제9사단 제30연대를 2사단에 배속시켜 이 부대를 삼각고지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사단은 30연대로 하여금 11월 1일 08시 부로 31연대와 임무교대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와중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p. 99.

에 사단장의 인사이드가 있었다. 전쟁초기 육군 총참모장 겸 3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정일권 중장이 11월 1일 부로 미 제9군단 부군단장으로 전임되고 그 후임에 강문봉 소장이 보직되었다.

제30연대는 백마고지전투에서 명성을 떨친 부대이다. 30연대는 백마고지전투를 치른 후 부대정비를 위하여 사창리로 집결하던 중, 10월 31일부로 제2사단에 배속되어 금화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사단은 작전지시 제77에 의거, 11월 1일부로 제31연대에 이어 30연대가 삼각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맡고 31연대는 사단 예비로 전환하였다. 30연대는 제3대대를 제인러셀고지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최초공격부대로 선정하여 11월 2일 13시에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2일 04시에 중공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고전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11시를 기하여 제3대대를 일단 철수시킨 후 13시에 계획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4시간 동안 제30연대는 줄기찬 공격을 거듭하였으나 돌격할 때마다 중공군이 형성하는 수류탄 탁막지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피해만 늘어났다. 연대는 용감하게 야간에도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다음날인 11월 3일 10시에 제30연대는 3개 대대를 투입하여 598고지에 대하여 공격하였으나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만 냈을 뿐 결국 실패하였다. 이렇게 2일간의 공격이 무위로 끝나자 제2사단은 11월 4일 08시 부로 사단 작전명령 제111호를 하달하여 제31연대 2대대를 제30연대에 배속하여 다음날 04시에 598고지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중공군과 접전한 지 10시간만에 공격은 좌절되었다.

한편 미 제9군단장은 11월 5일 15시 부로 삼각고지작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단장은 쇼우다운작전이 개시된 이래 삼각고지에서 미 7사단이 12일간, 한국군 제2사단이 11일간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손실만 누증되는데다가, 한국군이 점령중인 저격능선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삼각고지작전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군 제2사단은 저격능선작전에 주력하게 되었다.

2) 저격능선의 재대결

제31연대가 삼각고지를 인수한 동안 저격능선에서는 공방전이 재연되었다. 중공군 제135연대는 국군 제17연대가 확보한 A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 궁지에 몰려 있다가 2사단이 신 작전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한창 바빴던 25일 02시에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 역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예전의 침투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3대대는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한 후 제2사단장은 17연대와 32연대의 임무를 교대시켰다. 두 부대를 교대한 이유는 지난 5일 동안 격전을 치른 제17연대를 예비로 전환시켜 피로회복과 부대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이유는 2사단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써 17연대를 집결 보유시켜 양쪽지역에서 전개될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저격능선에서의 전투는 하루도 빠짐없이 끝없는 공방전이 11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국군이 주간작전을 펼쳐 우세한 화력으로 중공군을 제압하고 A고지를 탈취하면, 중공군이 이에 맞서 야간에 역습으로 대응하는 격전의 반복이었다. 이 기간에 중공군이 취했던 전술의 특징을 한국군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가. 중공군은 예외 없이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전반야: 19시-20시, 후반야: 01시-02시).

나. 공격 병력은 1개 대대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저격능선에 조공(助攻)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이 기간 중 중공군 지원화력은 삼각고지전투에 집중된 듯하였다.

라. 삼각고지에서 접전이 벌어지면 저격능선 정면도 어김없이 중공군이 출현하였다.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 pp. 93-94.

(3) 제3단계 작전(저격능선의 결전)

삼각고지 작전이 종결되었을 때, 모든 지휘관들의 관심은 저격능선에 집중되었다. 저격능선에서의 마지막 결전은 이번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이었다. 그러나 저격능선의 상황은 예상외로 조용하였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쌍방은 정찰대를 운용하였으나 대규모 작전은 전개되지 않았다.

한편 국군과 중공군은 이 기간 중에 부대를 교대하고 전투편성을 재조정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한국군은 전투편성을 재조정하였다. 저격능선전투가 가열되면서 좁은 정면에 3개 대대 병력까지 투입하여 밀집방어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험을 살려 저격능선에 1개 대대병력만을 배치하고 예비로 1개 대대를 기동예비로 갈골에 대기시켰다. 또한 사단 명령에 의해 11월 11일부로 32연대가 다시 17연대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삼각고지전투가 끝난 후, 제29사단 예하의 제86연대가 물러가고 제87연대가 투입되었다. 그러다가 저격능선에서 접전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11월 9일에 제31사단 예하의 제92연대가 증원되었다. 그러나 당시 아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11월 11일 15시를 기해서 중공군은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였다. A고지와 돌바위고지 일대에 8,000여 발의 포격을 가한 후 16시 15분에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이들의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투속도가 빠르고 공격기세가 강력하였다. 순식간에 A고지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교전 30분 후에는 돌바위능선까지 진출하였다. 18시경에는 대대 방어진지가 전면 와해되어 병력이 전부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에서는 저격능선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고 예비임무를 수행하던 제17연대를 사단 작전 명령 제114호를 통하여 제32연대의 작전임무를 인수받도록 하였다. 이에 제17연대 1대대는 11월 12일 0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10시 30분에 A고지를 탈환하였다. 그 후 국군 제2사단은 12일 15시 부로 전선을 재정비

하면서 이때까지 하소리지역을 주저항선으로 하는 부대가 저격능선을 맡아 오던 관례를 깨고 저격능선과 주저항선의 작전을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사단장은 제32연대로 하여금 주저항선을 계속 방어하도록 하는 한편 저격능선은 신 주저항선으로 삼아 제17연대장 책임 하에 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11월 13일 주간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한 후에 22시 30분에 은밀하게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밤의 공격에서 중공군은 3인조 단위로 은밀히 침투하여 A고지 북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맞서 1대대는 수 차례에 걸친 역습 끝에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점령하였다. 제17연대는 저격능선을 탈환한 제1대대를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14일 15시 부로 제3대대와 교대시켰다. 중공군은 계속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15일 01시에 공격을 다시 실시하였다. 2시간의 결전 끝에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중공군에게 피탈 당하지만 제3대대장은 병력을 수습하여 05시에 역습을 단행하여 06시 30분에 A고지에 탈환하였다. 그러나 쉽게 탈환하리라고 생각했던 돌바위능선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탈취하지 못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돌바위능선지역에서 갱도작전을 실시하고 있어서 한국군이 전투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1월 17일 06시 30분에 한국군은 돌바위능선의 갱도진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포병 사격을 실시한 후에 공격을 감행하여 10시 20분에 돌바위고지를 확보함으로써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한국군 제2사단은 18일 06시를 기하여 전선정비에 착수하였다. 저격능선 방어임무를 수행했던 제17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이 작전지역을 제32연대에 인계하도록 조치하였다. 제32연대가 저격능선을 인수한 후에도 중공군 정찰대가 수시로 나타났다. 그 동안 중공군은 제34사단 소속의 제106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 전력을 보강하여 마지막 반격을 실시하였다.

11월 20일 중공군은 대대적인 포격을 가한 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에 제32연대 3대대는 예비중대를 투입, 역습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은 전반야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일 02시에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차 공격 시와 마찬가지로 1개 대대 규모로 공격하여 왔으나 제3대대는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였다. 한편 연대는 이 교전 후 저격능선의 제3대대를 제2대대와 교대하였으며 그 후 전선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11월 25일 저격능선의 전투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A고지와 돌바위고지는 한국군 제2사단이 점령하고, Y고지는 중공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저격능선 전투가 종료된 것이다. 그 후 12월 중순께 전개된 일부의 탐색전을 제외하고는 양측의 접촉은 거의 사라졌다. 한편 미 제9군단은 작전명령 제33호를 하달하여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을 교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월 25일 06시 부로 2사단은 진지를 제9사단에 인계하였다. 그러다가 1953년 7월에 전개된 이른바 중공군의 최후공세에서 금성지역의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무너지자 제9사단은 작전상 계웅산 지역으로 철수함으로써 저격능선은 휴전선 북방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4. 중공군의 전술 분석

이제까지 저격능선전투의 작전배경과 작전경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당시 중공군이 독특하게 구사한 갱도전술과 작전지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는 적전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장차 유사한 작전 수행 시 이를 참고로 삼기 위해서이다.

(1) 중공군의 갱도전술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중공군은 장비의 열세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춘·하계방어작전을 통하여 일반 지상진지로는 병력을 보존하고 지구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포호(防砲壕)를 만들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갱도로 발전시켰었다. 1951년 추계방어작전이후 '중·조연합군사령부'는 전군에 갱도진지 구축을 지시하였고 효과적인 진지 구축방안과 갱도진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중공군은 진지구축에 따른 공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소규모 대장간을 설치하여 각종 탄피와 폐철을 이용하여 공구를 제작하였으며 부족한 폭약은 포탄을 분해하여 사용하였다.

저격능선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45사단도 능선 북사면 하단부터 상단까지 수 개의 통로 만들었고 8부 능선상에는 교통호를 따라 8-10m 간격으로 공중폭격에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업체호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능선북단의 대피호는 병력 수용뿐 아니라 탄약과 식량의 저장 및 의료 시설과 휴식공간까지 마련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갱도전술의 핵심을 견고한 진지에 의탁하여 유엔군이 많은 병력과 화력을 투입하도록 유인하여 병력을 대량 살상하는데 두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항공기와 포병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면 갱도에 숨어 집중포화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고 유엔군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기동하면 지상진지에서 방어하는 병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아군을 살상하였다.

상감령전투에서 중공군이 수행한 갱도전술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갱도를 근간으로 하는 방어진지에서 유엔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갱도 이외에 야전 지상진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적을 저지·살상해야한다. 둘째, 갱도작전의 목적은 중공군의 병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유엔군을 살상하고, 피로하게 하여 반격을 위한 시간을 버는 데 있다. 셋째, 갱도작전은 갱도내의 병력과 물자의 가용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급부대와 통신연락이 유지되어야하며 중심부대는 갱도입구를 엄호하여 유엔군으로부터 갱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아울러 병력과 탄약 그리고 식량 보급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갱도작

전의 기본은 적극적인 전투활동에 있다. 즉 강도에 의탁하여 소극적으로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아 끊임없이 소규모로 공격을 벌이는데 있다. 다섯째, 지상진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중심부대와 협력하여 강력한 역습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강도내외의 상호역습 또는 강도 단독역습을 채택한다.

그러나 유엔군은 저격능선전투 초기 중공군의 이러한 강도전술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군 제2사단장 정일권 장군은 “중공군의 역습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동굴진지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었다”라고 회고하였다.³⁰⁾ 그리고 정일권은 이 전투의 문제점으로 “동굴진지에 대한 폭파방법 등이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¹⁾

한편 한국군도 계획과 달리 전투가 장기화되자 진지구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지상진지의 유개화에 그쳤으며 일부 축성한 동굴진지도 중공군과 같이 역습을 위한 ‘적 속의 주둔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진지와 관련하여 한국군이 저격능선전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제17연대 5중대장 김재동대위가 드림통을 뚫어 한쪽에는 총안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교통호와 연결하여 이를 개인용 입사호로 구축하여 전투간 활용한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엄폐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상 저격능선전투에서 보여준 피·아의 진지활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중공군은 강도를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고 역습을 위해 전술적으로 적극 활용한 반면, 유엔군은 동굴이나 진지를 단지 중공군의 포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는 시설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상진지 점령 후 유엔군이 축성한 유개진지와 동굴은 적의 역습으로 피탈되어 도리어 적에게 역이용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시 수행한 강도전술은 이후 북한군에게 전수되었고 북

30) 안용현, 『한국전쟁비사-제4권』(서울: 경인문화사, 1992), p. 290.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정일권 증언록-저격능선전투』, 1979년 10월.

한군 전투교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북한군 교리는 갱도작전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³²⁾ 중요 지역에 땅굴을 굴착하여 아군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북한군의 갱도전술에 대응하고 그들의 땅굴작전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의 원조격인 한국전쟁시 중공군의 갱도전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하여 대갱도, 대땅굴작전술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중공군의 작전지도

이제까지 한국전쟁기 중공군은 우세한 병력을 바탕으로 인해전술을 구사하였다는 단순한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그 인해전술은 인명을 경시하는 무모한 것으로까지 비취졌다. 그러나 저격능선전투를 면밀히 분석하면 중공군이 풍부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중공군에 대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단순한 병력만을 활용한 인해전술이상의 작전지도를 구사하고 있다.

기동은 방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방자는 중심과 정면에서 대담하고 광범위한 기동을 실시해야 피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자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방자는 공자의 기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전투력이 분산되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공자의 전투력이 집중되는 지역은 각개격과 당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적은 지역에서는 유휴전투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전장정보를 바탕으로 공자의 위협이 적은 축선의 전투력을 과감히 적의 주력 축선에 집중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판단과 신속한 기동은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다.³³⁾ 1952년 8월 말 중공군은 유엔군이 서방산과 오성산 두 방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32) 『적전술 편람』(국군정보사령부, 1997), p. 31.

33) 『작전요무령』(육군본부, 1996), p. 6-4.

높다고 판단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병력을 집중하였다.³⁴⁾ 그리고 우리전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측 전사에 따르면 1952년 10월 2일 한국군 제2사단 참모 1명의 투항으로 유엔군이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에 근거해 이 두 고지에 대한 방어병력을 각각 1개 대대로 증강하였다.³⁵⁾ 즉 중공군은 유엔군의 의도가 오성산으로의 진격에 있다는 정보판단에 따라 제15군단 예하 45사단과 29사단을 상감령지역으로 기동시켜 병력을 집중함으로써 제1단계 작전에서 유엔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단계 작전에는 15군단 좌측을 맡던 제3군(兵團) 예하 12군단 병력을 상감령지역으로 이동시켜 15군단과 원활한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상감령전투에서 중공군은 병력 운용면에서 유엔군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공군은 3.7km의 협소한 전투지역에 2개 군단과 군사령부 예하 포병 화력이 지원되는 군사령부급 작전을 전개했으나 1개 대대를 넘지 않는 인원만으로 반격작전을 수행했으며 역습과 방어간에 부대가 손실을 입을 경우, 신속한 부대교체를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한국군 제2사단은 손실된 병력을 신병으로 보충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제32연대와 17연대의 손실병력은 4,829명이었고 장교 104명, 사병 3,868명이 보충되었다.³⁶⁾ 이것은 전투원 절반이상이 새로 전입된 신병이었음을 뜻하며 신병들은 부대 적응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가 희생이 늘어나고 부대는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병력운용에 대해서 당시 사단장을 지낸 정일권 장군을 비롯하여 주요 지휘관들은 공통적으로 저격능선작전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결국 손실된 병력에 대한 신병보충보다는 신속한 부대교체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4)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p. 290.

35)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著, 『抗美援朝戰爭史-第3卷』, p. 288.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서울: 국방부, 1975), p. 444.

공세적 방어는 적시에 상대에게 공세행동을 취하여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방책이다. 한국전쟁기 중공군은 수세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방어를 실시하기 위해 자주 공세행동을 실시하였다. 상감령전투는 방자의 입장에 있던 중공군이 실시한 전술적 반격작전의 하나로 그 성격으로 볼 때 대표적 공세적 방어라 할 수 있다. 상감령전투가 있기 전 중공군 지도부는 전술적 반격의 작전지도 중점을 적을 소모시키고 부대를 훈련시키는 것에 두고 적극방어와 지속적인 소규모 섬멸전을 통해 전과를 쌓아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권투에서 잣은 잽을 날려 상대를 KO 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작전지도에 따라 중공군이 수립한 전투수행 방법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공격목표가 중공군에게 유리하고 진지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면 이를 점령하여 고수방어를 실시한다. 둘째, 공격이 쉽고 진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역습을 기다린 후, 다시 반격하는 ‘반복 쟁탈전’을 통해 적의 병력을 최대한 살상한다. 셋째, 공격목표가 방어하기에도 불리하고 진지 또한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면 신속히 타격하고 빠르게 철수함으로써 수세에 빠지거나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중공군은 저격능선전투에서 이상 세 가지 전투수행방법 가운데 주로 두 번째 방식을 택하여 지속적인 고지쟁탈전을 42일간 지속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중공군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본래 5일간의 전투로 소기의 작전목표를 달성하려던 계획에서 벗어나 무모한 공격을 반복함으로써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5. 결론 : 중공군의 상감령전투에 대한 재평가

이상 한국군 제2사단이 중심이 된 저격능선전투와 중국측이 말하는 소위 상감령전투의 발발 배경과 작전계획 그리고 작전경과 및 작전의 결과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전투에서 보여준 중공군의 궤도전술과 작전지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장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격능선전투에 대해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재평가를 실시 하고자 한다.

먼저 저격능선전투를 존재하게 한 소우다운작전의 목적은 수세에 있던 유엔군이 이 작전을 통해서 전장과 휴전회담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에 대하여 1개 대대가 넘지 않는 병력을 투입하여 전초진지를 회복한다는 작전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미8군사령부는 이 작전이 5일간 소요될 것이며,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격개시 직후부터 전투는 유엔군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천명의 인원손실을 입은 후, 최초로 계획했던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중 일부분인 저격능선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만을 점령한 채 작전은 42일이 지나서야 종료되었다.

또한 저격능선전투로 유엔군이 목표했던 작전의 주도권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저격능선전투이후 쌍방은 대규모의 공세작전을 제한한 채 전선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소강상태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까지 이어졌다. 저격능선전투가 있기 전까지 미8군사령부를 비

<표 2> 저격능선전투의 전과와 손실

구 분	중 공 군	유 엔 군
중공군자료	11,529명	25,498명
한국군자료	14,867명	4,830명(국군 2사단 피해)
유엔군자료	19,000명	9,000명

출처 : 중공군 자료 : 童德先, 앞의 책, p. 123 부록 2.

한국군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8권』, p. 439.

유엔군 자료 : 육군본부 역, 『팜플렛 70-17-2 유엔군 전사 : 휴전전막과 싸우는 전선』(서울 : 육군본부, 1984), p. 227.

롯한 전선의 지휘관들은 중공군과 북한군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유엔군 사령관과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상당히 공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저격능선전투를 치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건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격능선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유엔군측이 수세적인 입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저격능선전투는 오랜 기간 동안 유엔군이 전투력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소기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단지 저격능선의 작은 전초하나를 탈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유엔군이 중부지역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공세를 취한 쇼우다운작전은 중공군이 예상외로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만 입고 소기의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중공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과 대규모 지상군 작전을 우려하면서 1952년 가을까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의 공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부전선의 상감령지역에서 전투를 치열하게 전개함으로써 유엔군의 공격역량을 묶어두려 하였다. 이러한 중공군의 전략은 유효하여 42일간 유엔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상감령지구에서 반복적인 고지쟁탈전을 벌이며 흡수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저격능선전투이후 더 이상 한국전쟁에서의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중공군이 상감령전투에서 저격능선의 일부인 A고지와 돌바위능선을 상실하고, 약 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었다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유엔군의 공세를 제한하고 전선의 교착상황을 고착화하였다면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하겠다.